

한중경제포럼

제15-06호 2016년 1월 28일

중국: 순탄하지 않은 ‘뉴노멀’

2015년 제6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 <중국: 순탄하지 않은 ‘뉴노멀’ >
2. 일 시 : 2015. 12. 17(목) 16:00~18:00
3. 발표자 : IMF 중국사무소 린위이지(林衛基) 부소장

1. 중국경제 평가

- 2015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9%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음.
 - 중국의 소비 및 투자 증가율의 둔화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GDP대비 소비 비중이 증가하면서 소비주도 성장으로 변화되고 있음.
 - 반면 그동안 중국 경제 성장에 주요한 역할을 하던 수출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중국의 성장 동력이 소비로 변화되고 있지만, 수출은 중국경제에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제조업을 위주로 하는 2차산업의 성장속도는 크게 둔화된 반면 서비스업을 위주로 하는 3차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함.

그림1. GDP성장 기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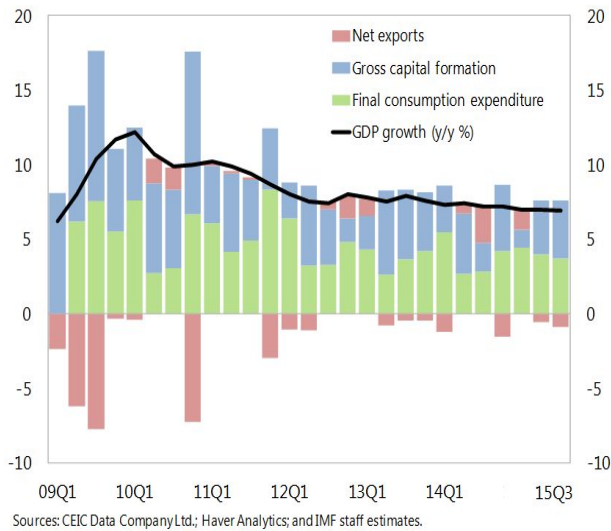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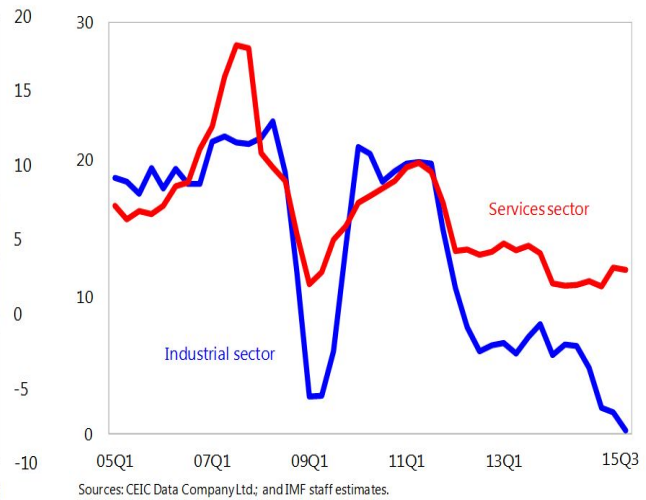


그림2. 산업별 명목 GDP성장률 (y/y %)



□ 부동산업과 부동산 관련 산업의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되었으며, 특히 철강, 시멘트, 유리, 가전제품 등 생산과잉 문제가 심각한 산업의 생산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 중국 부동산업은 생산과잉 문제가 심각하며, 생산과잉 문제는 약 2~3년에 걸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1선 도시의 경우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3, 4선 도시는 생산과잉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재고문제를 해결하려면 2~3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2016년에도 중국 부동산업은 마이너스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수치는 사회보장주택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의 영향을 받아 변화할 것임.

□ 소매판매액, 인프라시설분야의 고정자산투자는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함.

- 2015년 소매판매액은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중국은 소비고도화 과정에 있으며, 지난 몇 년간 대대적으로 건설된 인프라시설은 소비를 위해 양호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
 - 또한 도시화 발전에 따른 소비 증가 및 고도화가 예상되며, 특히 첨단설비 등 선진제품에 대한 소비수요 확대로 향후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임.

그림3. 산업별 생산 증가율과
부동산 투자 증가율 (3mma, y/y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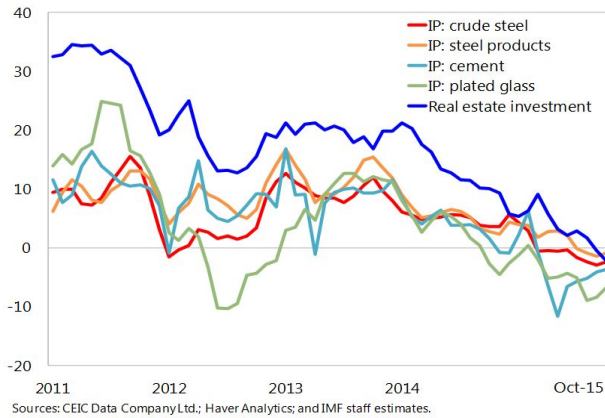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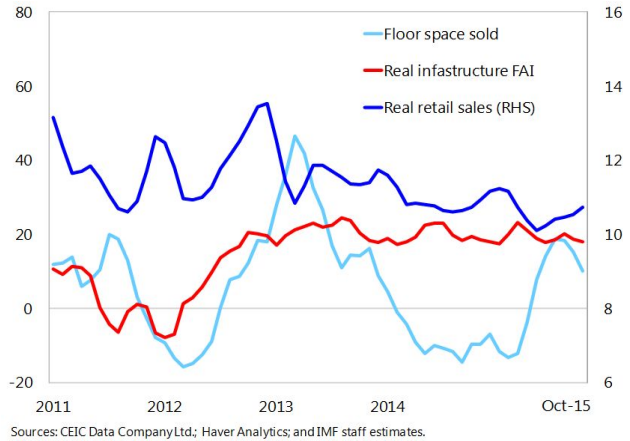


그림4. 소매판매총액, 인프라시설 고정자산투자
건축면적 판매액 (3mma, y/y %)



□ 2015년 한 해 동안 중국의 주식시장은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음.

- 2015년 중국의 주식시장은 장내외 순주식 및 채권 발행으로 발전하였지만, 폭등과 폭락을 경험하면서 큰 변동성을 보임.
 - 2015년 6월에 시작된 주식시장의 폭락은 2015년 8월의 사상최대 폭락 폭을 기록함.
- 하지만 중국의 경우 ①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이 낮고 ② 기업의 전체 자금조달 중에서 주식시장을 통한 용자가 낮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식시장 변화가 전반적인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 중국의 가계 금융자산 비중은 미국이나 영국 등 국가보다 훨씬 낮은 10%~15%에 불과함.

□ 향후 중국 주식시장의 발전을 위해 금융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시장에 통일된 정책신호를 전달해야 함.

- 금융 감독관리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며, 아직 도입하지 않은 증시안정기금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증시안정기금을 도입할지라도 주식시장의 구체적인 지수를 직접적으로 간섭할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의 체제적인 리스크 방지와 통제에 중점을 두어야 함.
- 긴축적으로 주식과 채권 발행 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시장에 통일된 정책신호를 전달해야 함.

□ 2015년 환율시장은 8월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 후 큰 변동성을 보임.

- 2015년 위안화 실질실효 환율이 크게 절상되어 12월 기준 130.31로 전년대비 3.93% 상승했음.
- 2014년 해외자본유출(외환보유고 급감)은 위안화 평가절하의 압력으로 작용해 왔으며, 중국 당국은 2015년 8월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를 시행함.
 - 2015년 8월 11일에 시행된 위안화 평가절하는 △ 환율결정 메커니즘의 시장화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위안화의 SDR 편입 협상력 제고 △ 유로 및 엔화 등의 절하에 따른 중국 위안화의 상대적 고평가를 부분적으로 해소함

으로써 국내 내수 및 수출 경기 부양 △ 단기 자본 유출입을 조절함으로써 외환보유고의 급격한 변동 해소 등 목적에서 시행됨.

- 위안화 환율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것이며, 환율이 시장규칙에 따라 절상/절하가 가능해야 함.
- 환율 변동성이 높아질 경우 환율에 의한 자본유출 조절기능이 강화될 수 있음.

그림5. 위안화 실질실효환율 변화추이
(REER, RMB/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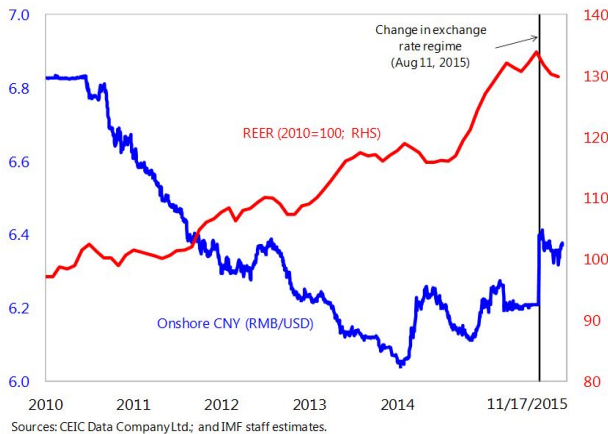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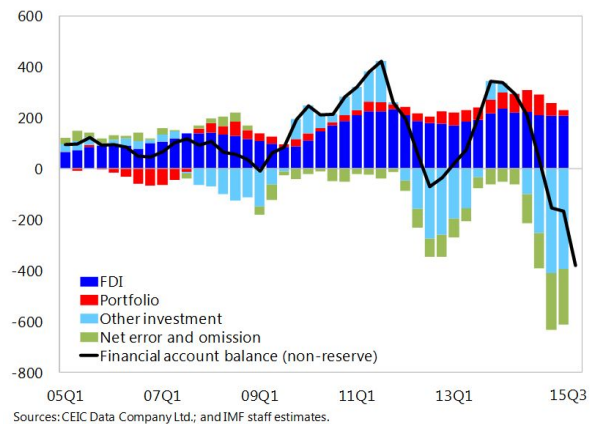


그림6. 금융계정(USD bn, 4Q 합계)



2. 중국경제 리스크 점검

□ (리스크요인 1: 성장) 경제의 성장둔화 압력이 여전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부동산 및 관련 생산과잉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으로 성장둔화 압력이 존재함.
- 2015년 2차 산업의 생산증가율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2016년에는 약 6.3% 내외로 예상됨.
- 2015년도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측하였던 것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경제 하방 리스크는 증대됨.
- 정부가 2016년 성장예측목표치를 지나치게 높게 정한 것도 리스크 요인 중 하나임.

□ (리스크요인 2: 금융시장의 변동성)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 모두 일정한 리스크가 존재함.

- 2015년 중국의 주식시장은 폭등과 폭락을 경험하면서 큰 변동성을 보였음.
- 2015년 창업판의 변동 폭은 50%를 상회했으며, 상하이 종합주가지수의 연간 변동 폭은 39.87%에 달함.
- 2016년에도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이 지속될 것이며, 평가절하 우려에 따른 해외자본의 유출 위험이 존재함.

그림7. 실질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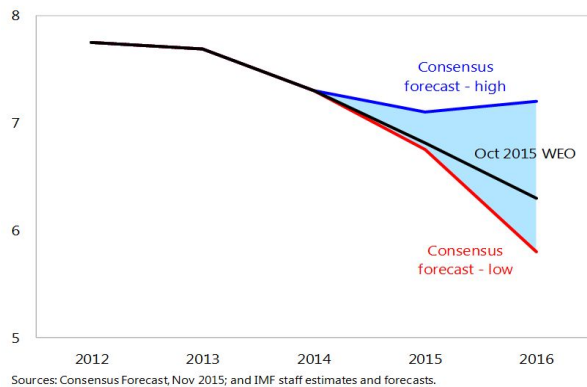


그림8. 역외 위안화 내재변동성, 상하이종합주가지수 변화율(%)



□ (리스크요인 3: 채무) 중국의 기업채무는 중장기적으로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음.

- 중국의 기업채무는 GDP의 1.2~1.5배로 상당히 큰 규모를 갖고 있으며, 기업채무 증가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
 - 지난 몇 년간 기업채무의 증가율은 20% 내외에 달하였고 2015년도는 12%~15%에 달하고 있음.
 - 다른 국가의 경우 이러한 증가율을 보였을 경우 금융위기나 은행위기를 겪은 사례가 많았고, 위기가 발생하지 않았을지라도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함.
- 현재 많은 중국의 기업들이 결손상태에 있으며,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한 상황임.

□ 중국정부는 △ 높은 외환보유고 △ 높은 정책 통제력 △ 높은 잠재성장률 △ 은행시스템의 유동성 충분 등 완충메커니즘을 통해 리스크 해결이 가능함.

-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약 3조 3,300억 달러로 세계최대 수준이며,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이 충분함.
- 또한 중국 정부는 높은 정책 통제력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적절한 조절을 통해 저금리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높은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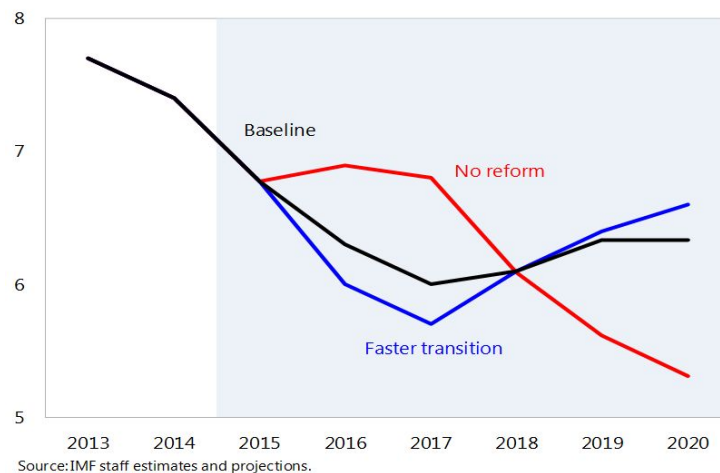
3. 2016년 거시경제 정책 방향

□ 경제구조 개혁을 통해 성장률 둔화에 대응함.

- 중국 경제성장은 더욱 완만하지만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중국경제는 6%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6-6.5%).

- 중국정부가 경제 전 분야에 걸쳐 개혁을 추진할 경우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다소 하락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6%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기업의 채무개혁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총요소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개혁성고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은 7% 내외를 유지할 수 있지만, 신용대출 규모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경제 하방 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9. 실질GDP 성장률(%)



- 통화정책은 경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실시가 필요가 있으며, 지나치게 완화된 통화정책의 시행은 바람직하지 않음.
- 금리인하를 통해 경제성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음.
- 하지만 이미 생산과잉 산업에 많은 대출이 있어, 금리가 낮아질 경우 생산과잉 산업이나 좀비기업(僵尸企业)을 시장에서 도태시키기 어려움.
- 한편, 통화정책 조정을 통해 경제성장을 다소 촉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관련 개혁이 수반되어야 정책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음.
- 중국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정부는 경제성장률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은 GDP대비 재정적자비율이 낮은 편으로 재정지출 확장을 통한 경기부양의 여지가 많음.
- 이후 재정지출은 공공부문이 아니라 국민소득 증가에 유리한 교육, 의료, 사회보장보험 등 분야에 투입되어야 할 것임.

그림10. 실질금리와 통화상황지수(MC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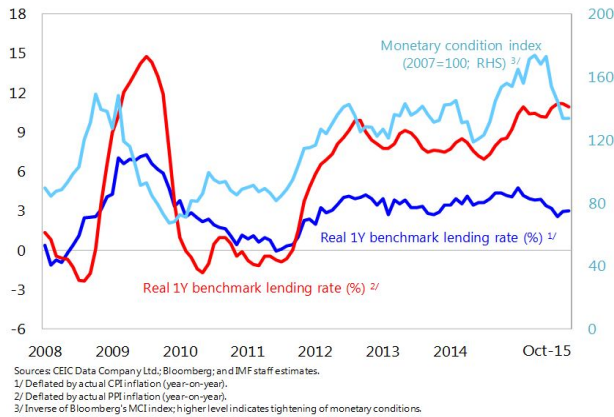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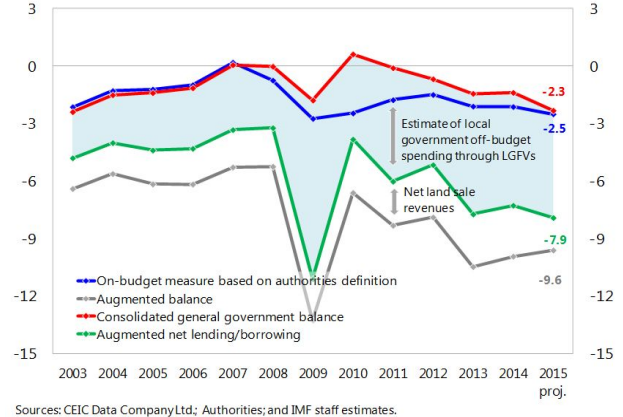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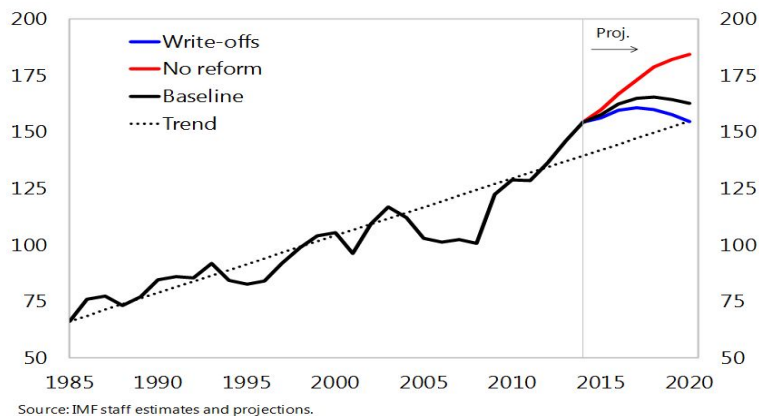
그림11. 재정잔액 비중(GDP대비 %)



□ 기업의 채무조정을 통해 기업채무 부담 문제를 해결함.

- 회생 가능한 기업의 채무를 재조정하고, 회생 불가능한 기업을 도태시켜 은행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효율적인 부분에 신용을 할당함.
- 기업의 높은 레버리지비율은 재무비용을 상승시키고, 신규투자 위축 등 성장둔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뿐 아니라 부채 디플레이션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함.

그림12. 비금융기업의 채무비중(GDP대비 %)



4. 경제개혁

□ 구조개혁에는 성과와 문제점이 동시에 나타남.

- 중국정부가 구조개혁을 시행함에 따라 금융부문에서 신용리스크가 일시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은 있지만, 높은 저

축률, 정부의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할 경우 금융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지방정부 융자플랫폼 관련 개혁은 빠르게 진전되어 다소 성과를 보였지만, 조세개혁이나 사회보장보험 등 관련 개혁의 성과는 미미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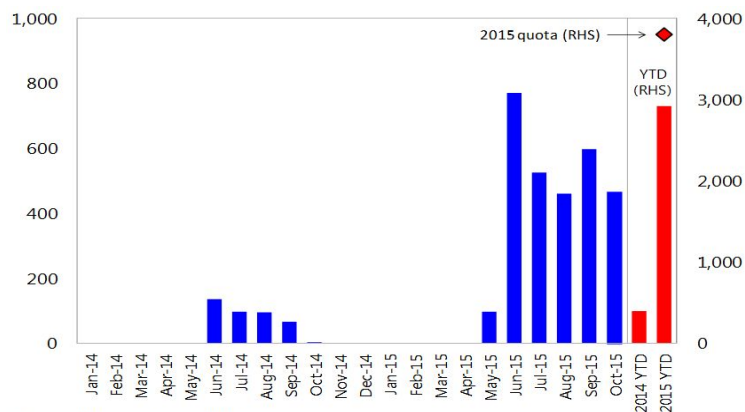
□ 지방정부의 채무관리 강화를 위해 새 예산법에서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을 허용함.

- 중앙정부는 지방발전의 수요, 지방정부의 채무문제 해결, 리스크 관리의 규범화 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지방정부에 지방채 발행 권한을 부여함.
 - 새 예산법에서는 지방정부 채무 발행의 주체, 채무의 용도, 상환방식 및 리스크 관리 원칙 등 채무관리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

□ 중국정부는 최근 지방정부의 채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의 신규채권으로 전환하는 지방채치환 프로그램을 발표함.

- 지방정부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2015년 5월 재정부, 인민은행 및 은감회가 지방채를 은행에 지정 발행하여 기존의 지방정부 대출과 맞교환하는 지방채 치환방안을 발표함.

그림13.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총액(10억 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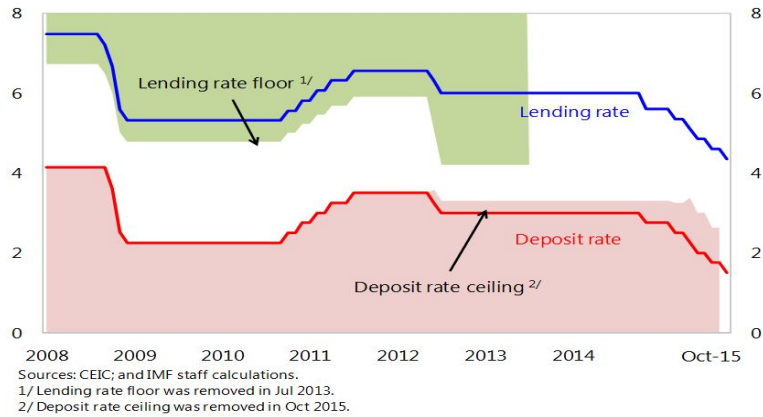


Sources: WIND database; and IMF staff estimates.
Note: YTD refers to Jan - Oct of corresponding year.

□ 금융분야에서는 예금금리 상한 취소 등 금리 시장화 개혁이 빠르게 추진되었고 예금보험제도와 위안화의 SDR 가입을 위한 관련 개혁이 추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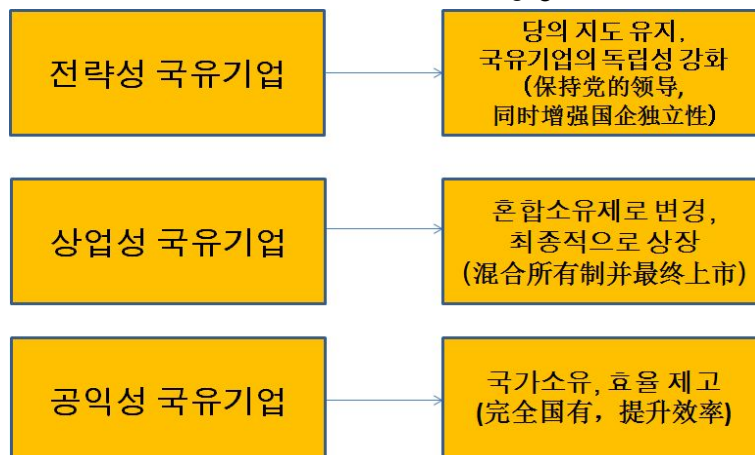
- 대출금리는 자유화 되었으며, 예금금리도 상한선이 폐지되어 거의 자유화 수준임.
-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편입을 위해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를 시행함.
 -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를 통해 위안화의 환율 변동성을 확대함.

그림14. 예금기준금리와 대출금리 추이(%)



- 국유기업은 전략성(strategic), 상업성(commercial), 공익성(social)기업으로 분류하여 개혁을 추진함.
 - 국유기업을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 평가, 발전방향과 목표 제시 등 차별화된 개혁을 추진함.
 - 전략성 국유기업은 국유기업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상업성 국유기업은 혼합소유제를 적극 발전시켜 국유기업에 비국유자금을 도입하며, 공익성 국유기업은 경영구조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시킴.
- 또한 국유기업의 개혁은 적극적인 시장개방 및 결손기업을 시장 도태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함.
 - 서비스업 시장을 개방하여 상업성 국유기업이 민간기업과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결손(缺損)상태에 있는 좀비기업이나 생산과잉 국유기업을 시장에서 도태시키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함.
 - 이러한 두 가지 개혁 방향은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것임.

그림15. 국유기업 개혁방향



5. 중국 정책의 스피로버 효과

□ 전세계에 대한 중국 정책의 스피로버 효과는 예측을 초과함.

- 2015년 8월에 발생한 위안화 평가절하는 아시아지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통화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음.
 -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대국이며, 전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위안화 절하의 영향은 전 세계 통화시장에 큰 영향을 미침.
- 중국의 위안화 절하는 지난 1년간 전 세계 수입액이 감소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임.
 - 전체 수입액에서 중국의 비중은 10년 전에 비해 2배로 증가하면서, 전 세계 수입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증가했음. 즉 중국 수입액의 감소는 전 세계 수입액이 감소된 가장 중요한 원인임.

그림17. 글로벌 수입에서 중국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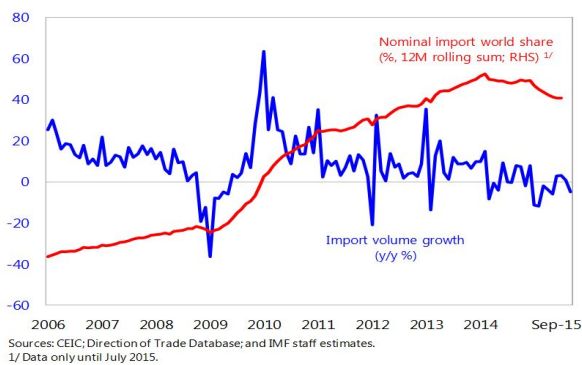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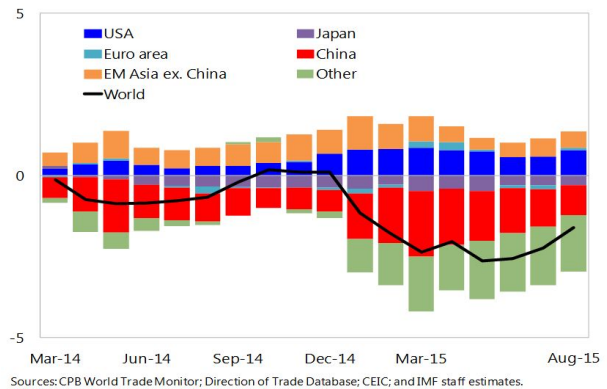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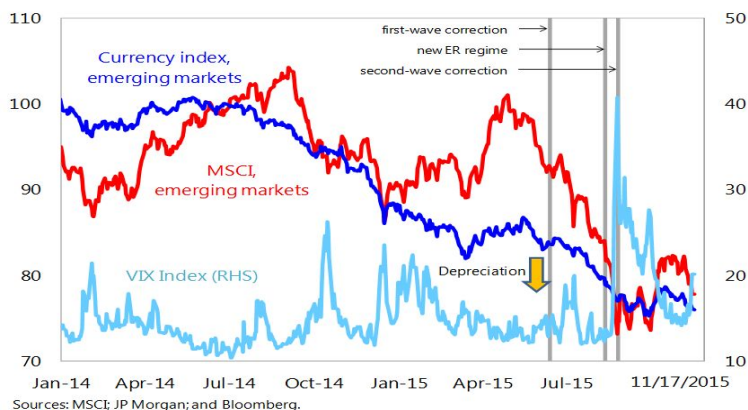


그림18. 세계 수입액의 누적 변화 (2014년 2월 이후, p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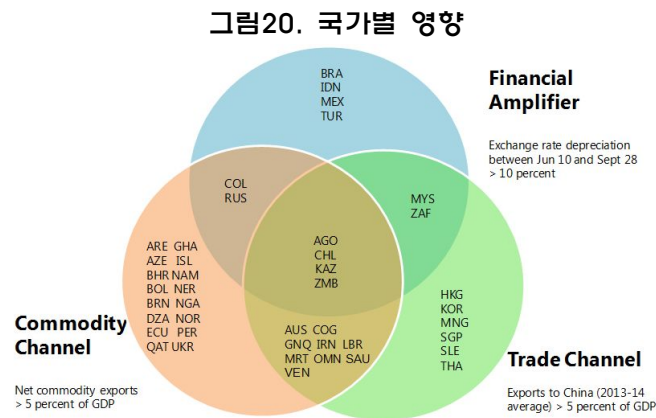
□ 최근 중국의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의 변동은 전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높였으며, 신흥시장의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쳤음.

그림19. 신흥시장 MSCI와 통화지수(VIX지수)



□ 중국 경제정책의 스페illo버 효과는 국가별로 상이한 영향을 나타냄.

–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는 무역분야에 스페illo버 효과가 크게 나타났음.



<질의응답>

질문 1.

비금융기업의 채무규모가 GDP대비 150% 정도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부채는 90%로 나타나는데 최근 서방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총 부채가 GDP 대비 250%~27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는데 IMF에서는 중국의 부채비율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가?

답변 1.

기업채무와 관련해서 전문가나 학자마다 각각 다른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수치가 어쨌든 궁극적으로 모두 일치한 견해를 갖고 있음. IMF는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사회 총융자 규모를 기반으로 하여 채무규모를 통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중국의 채무규모는 GDP 대비 200% 내외로 추정됨. 그 중 40%는 개인채무이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공공부채는 50%~60%, 그리고 남은 부분은 기업채무인데 약 120%~150%에 달함. 기업채무의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기 어려운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채무통계와 관련해서 불투명한 부분이 많고 일부 전문가는 지방 융자 플랫폼의 채무부분을 공공부채가 아니라 기업채무에 포함시켜 통계하며, 통계방법이 차이가 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많음. 채무통계와 관련해서 중국인민은행이나 다른 연구기관에서 각각 다른 통계수치를 제시하고 있음.

질문 2.

국유기업 개혁 관련해서 중국정부가 지도의견을 발표했는데 최근에 몇 개 기업을 합병한 이외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국유기업 개혁이 어떻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답변 2.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일련의 지도의견을 발표했는데 향후 위에서 제시한 시장개방과 결손기업이 시장에서 도태되는 방향에 따라 추진될 것인지 여부는 장기적으로 살펴보아야 함. 이러한 지도의견이 발표되면서 개혁이 빠른 진전을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함. 특히 지방정부와 지방 국유기업(상업화 국유기업)의 시장경쟁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함.

질문 3.

최근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였는데 그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은 환율 절하 조치를 취한 것 같음. 2015년도에 중국은 금리를 수차례 인하 조정하였는데 앞으로 중국의 금리 조치는 어떻게 예상하는가?

답변 3.

향후 몇 년간 미국은 지속적으로 긴축된 통화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 전문가별로 금리인상 시기나 인상폭에 대해 각각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만, 긴축된 통화정책을 실시할 것이라는 관점은 일치함. 중국의 통화정책은 거시 조정 정책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지난 1년간 중국인민은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기준율과 금리를 인하 조정하였음. 현재 중국 경제는 하방 압력이 크고 채무문제로 인해 긴축된 통화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오히려 완화된 통화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기준율을 인하 조정할 수도 있다고 예상됨. 왜냐하면 기존 기준율은 15% 내외로 여전히 인하 조정할 여지가 있고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전체 자본의 유동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임. 금리조치와 관련해서 채무문제를 고려해야 하는데 자금조달 비용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채무리스크가 강화되지만, 반면 금리를 대폭 인하할 경우 대출규모가 증가하면서 기존 신용대출이 대부분 국유기업이나 생산과잉 기업에 투입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의 시장도태에 대해 소극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질문 4.

해외에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북경대학은 현재 개혁조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앞으로의 잠재성장률을 7%~8%까지 제고하여, 향후 중국은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함. 현재 IMF에서 중국의 장기 경제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가?

답변 4.

중국의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부 요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일부 요인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음. 우선 IMF는 중국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소 및 북경대학 등 연구기관과 교류를 가진 적이 있는데 모두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 등 원인으로 인해 현재 중국은 과거의 성장방식이나 국정과 전혀 다른 새로운 양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 의견을 일치함. 향후 5~10년 사이 노동력이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0에 가깝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은 TFP(총요소생산성)로 예상됨. 비록 총요소생산성과 관련해서 많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18기 3중 전회에서 제시한 개혁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예컨대 호적제도 개혁, 도시화 진전, 국유기업 개혁 등을 통해 정부가 아닌 시장을 통해 생산요소를 배치할 경우 총

요소생산성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자본누적도 잠재성장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북경대학에서는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에 대해 자본누적이 중요한 견인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IMF는 이에 대해 그렇게 낙관적으로 전망하지 않음. IMF는 중장기적으로 중국경제 잠재성장률에 대해 7%~8%로 높게 전망하지 않고 6%~6.5%로 예상함. 이러한 잠재성장률을 달성하려면 중국정부는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함. 물론 중국정부에서도 개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인 정책이 뒷받침돼야 함. 예컨대 국유기업 개혁을 가속화하고 서비스업 진입문턱을 낮출 경우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겠지만, 아직 실제적인 개혁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질문 5.

생산과잉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추진 중에 있는 일대일로 전략도 생산과잉 문제 해소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산과잉 해소 과정에서 원재료 가격하락, 수입 감소 등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5.

중국정부는 생산과잉 문제를 해소하는데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음. 왜냐하면 현재 중국은 시장에 의해 자원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유기업이나 국가정책 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임. 따라서 생산과잉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원재료 가격이나 수입 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생산과잉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임. 비록 중국의 생산과잉 해소는 일부 국가에 대해 소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고용창출 증가, 경제성장 촉진 등 적극적인 영향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됨. 2015년 11월 말, 12월 초에 중국 국무원 역시 좀비기업이나 결손기업을 시장에서 도태시키는 등 생산과잉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결심과 의지를 밝혔음. 이러한 중국정부의 결심에 의심을 갖지는 않지만, 이러한 과정은 순탄하지 않고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됨. 2016년에는 더 많은 지방 좀비 국유기업이 시장에서 퇴출하기를 기대함. 이러한 변화는 생산과잉 해소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임.